

호랑이 할아버지를 추모하며

In Memory of "Old Tiger"-Architect Cho Ja-Yong

조현군 / (주)전인건축사사무소

by Cho Hyun-Goon

속리산 입구에 있는 에밀레 박물관에 계신 조자용선생이 돌아가셨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보았다. 생각보다는 기사가 작게 다루어져 약간 서운한 느낌이 들었다. 상당히 오래전에 에밀레 박물관을 방문하고 하룻밤 묵으면서 여러 가지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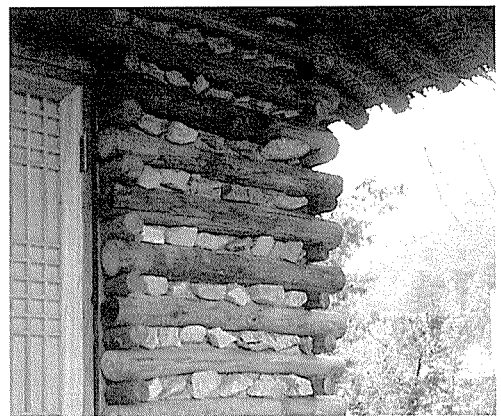
그때 당시는 정년퇴임하신 은사님의 문하생들이 대학 동창들 모임으로, 고적 답사를 겸한 건축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하여 에밀레 박물관을 택한 것이었다.

또한 조자용선생에 대해 민화 관련 서적을 통해서 조금 알고 있었고, 원래 건축가에서 민예연구가로 변신한데 대해서도 궁금해 하던 차라 이 모임에 적극 나서게 되었다.

그 당시에 시골 국민학교를 빌어쓰던 에밀레 박물관은 이미 폐쇄되어 있었고, 그 뒤 골짜기에 삼신사(三神祠)캠핑장을 만들어 방문객들을 받아 자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캠핑장내에는 전시장, 숙소, 식당, 놀이장, 소강당, 사당 등이 갖추어져 있었고, 건축가출신답게 토속적인 재료로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게 설계되어 있었다.



속리산 삼신사 캠프 전경



외벽 디테일

삼신사는 꽤 넓은 캠프장인데 선생내외 두 분이 관리하고 있었고, 단체 손님들이 올 때는 동네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었다. 푸짐한 저녁식사후 소강당에서 선생의 민예강좌를 듣게 되었는데, 호랑이 할아버지라는 별호를 가진 그분의 지나온 얘기며, 최근의 관심사 등에 대해서 구수하게 얘기를 들려 주었다. 무엇보다도 머리가 수그러졌던 점은 다른 사람들이 전혀 관심조차 갖지않고 버려져 있던 우리의 전통민예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의 뿌리를 찾고자 일생동안 이 일에 매진하여 고독하게 그것을 지켜나가고 있었다는 점이다. 요즘에는 일반인들도 전통민예에 대하여 어느정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분이 활동할 초기에는 어느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그 분야를 미국유학까지 다녀온 분이 도깨비기와, 호랑이그림, 무당그림에 미쳐서 전국을 돌아다녔다고 하니 그 집념이 대단했을 것이다.

그분이 민예에 관심을 갖게된 것은 미국유학 시절에 한국민예에 관심을 가진 미국인을 통해서라고 하는데, 자기가 미국 유학을 가지 않았으면 한국 전통민예에 대해 눈뜨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이 얼마나 역설적으로 들리는지...

삼신사 캠프 방문 당시 그분의 주요 관심사는 우리의 무속신앙인 삼신(三神)사상에 관한 것으로 우리 전통예술의 뿌리를 거기에서 찾고 있었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벽사(酸邪)신앙과 벽사미술이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무당그림, 서낭당, 장승들의 복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고, 삼신사 캠프장에도 각종 장승을 모아놓고 사당, 삼성당 등을 지어 의식을 지내고 있었다.

그날 저녁 늦게까지 막걸리를 마시며 여러 얘기들을 나누었는데, 조금 안타까웠던 점은 그분이 일



속리산 삼신사캠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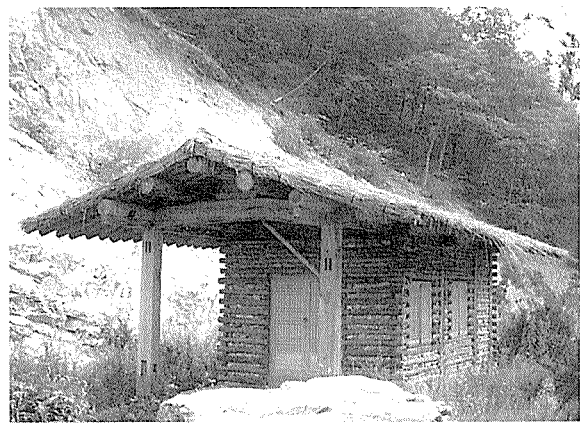
생동안 모아놓은 민예품들이 제대로 보관하기가 힘들어 많이 훼손되고 있다는 점과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후원자들의 결성문제, 그리고 후계자 양성문제가 쉽지 않다는 점들이었다.

삼신사 캠프를 방문하고 난 뒤, 그곳 소식이 궁금하면서도 접할 기회가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 그분의 부음을 접하고, 민예 전문가인 동시에 뛰어난 건축가이신 분이 아깝게 돌아가셨다는 생각에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하버드대학에서 건축관련 전공을 하신 선생의 작품으로는 정동미대사관저, 전주예수병원, 종로YMCA 빌딩 등이 있는데, 삼신사 캠프내의 건축물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우리 전통건축에 애착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현대에 맞게 한옥의 디테일을 간략화한 것이라든지, 토착적인 재료의 구사, 자연환경과의 조화 등 우리 전통 한옥의 기본원리를 충실히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그가 건축작품활동을 계속하였다면 한국토양에 맞는 견실한 작품을 많이 발표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민예연구가로서 큰 족적을 이 세상에 남기고 가셨지만, 건축가로서 그분의 자질과 능력도 우리가 평가해 주어야 할 것이다.

문화라는 말이 금세기의 화두가 되고 있고, 진정으로 존경할 만한 선배가 적은 우리의 건축계의 현실에서 한평생 한 우물을 판 선생의 존재가 더욱 돋보이는 것은 필자만의 감상적인 생각은 아닐 것이다.

부디 그분의 유지를 잘 받들어나갈 후학들이 많이 배출되고, 에밀레 박물관과 삼신사 캠프의 여러 소장품들이 잘 보관, 관리되어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나서 우리 것 찾기에 일생을 바친 선생의 꿈이 길이 유지되기를 바랄 뿐이다.



속리산 삼신사 캠프내 건축물(숙소)